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실무작업 속도

비전·경기장 컨셉 등
순차적 공개 방식으로
국민적 지지 확보키로
국제협력 확대도 병행
올림픽 데이 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조영식 전주하계올림픽추진단장은 2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추진한 유치관련 사항을 기자들과 공유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가 국외 홍보도 중요하지만 국내홍보도 중요한 만큼 국내 홍보를 위해 2개월 단위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비전', '경기장 컨셉'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제 협력 확대도 병행된다. 도는 올림픽 데이(6월 23일)를 기념해 '올림픽 데이' 행사를 열고,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와 연계한 홍보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도 타진 중이다.

영문 로고 병행 사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도는 인도 사태 등을 토대로 IOC에 공식 질의를 진행 중이



조영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하계올림픽추진단장이 21일 오전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며, 공항과 국제대회 현장에서의 영문 홍보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을 받기로 했다.

전문가 중심의 전략 자문체계도 구축된다. 오는 29일, 전북도는 국제 스포츠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19명을 초청한 유치 전략 자문회의를 열고, 이를 2개월 주기로 정례화할 예정이다. 자문단에는 서울·평창 올림픽 유경험자는 물론, 도내의 연구자들도 참

여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도는 올림픽 유치 활동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전북도의회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이 발의하는 방식으로 준비 중이다. 이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유치 활동 지원 근거, 전문가 자문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도 준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선 이후 국회 일정에 맞춰 국회 보좌진과 소통하며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김문덕 의원 등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국제 도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만호기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20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 5회 말 1타점 적시타를 치고 나가 세리머니하고 있다.

MLB 이정후, 2경기 연속 적시타 '왕'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3-2 승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득점권에서 적시타를 치며 팀 2위 도약에 힘을 보탰다.

이정후는 21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MLB)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 3회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을 작성했다.

전날 캔자스시티전에서 1타점 2루타를 터트린 이정후는 2경기 연속 적시타를 생산했으나 타율은 0.276에서 0.275로 소폭 떨어졌다. 타점은 31개가 됐다.

샌프란시스코(20승 20패)는 3-2로 승리하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27승 19패)를 끌어내리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로 올라섰다.

/뉴시스

2025학년도 무주교육장배 초·중학교 육상대회 성료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은 20일 오후 2025학년도 무주교육장배 초·중학교 육상대회를 총 12교 학생선수 139명을 대상으로 열었다.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 22종목(트랙 14종목, 필드 8종목), 중학교 12종목(트랙 10종목, 필드 2종목)으로 치러졌다.

이번 2025학년도 무주교육장배 육상대회에서 각 종목 1위를 차지한 학생

들은 9월에 개최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육상대회에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무주를 대표해서 역량을 펼치게 된다.

무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학생들이 질서있는 모습을 보여줘 부상자 없이 무사히 대회를 치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군의 해외파병과 태권도 세계화 역사’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0주년 맞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학술대회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장 오성대, 이하 군사편찬연구소)는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에서 ‘국군의 해외파병과 태권도 세계화의 역사’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22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태권도계 전문가, 전·현직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군사편찬연구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태권도가 한국군의 해외파병 과정에서 수행한 역사적·문화적 역할을 조명하고 편지에서의 태권도 교실 등 유엔 평화유지 활동 사례를 통해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재 등재 심사를 앞두고 있는 '주월 한국군 태권도 교관단' 관련 자료에 대해 도 등록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을 높이고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술대회 기조연설은 아시아태권도연맹 이규석 회장이, 주제 발표 시간에는 △국군 내 태권도 역사의 시작과 변천(최점현 예비역 중령), △태권도 세계화의 출발점 주월 태권도 교관단(이신재 군사편찬연구소 부장), △해의 파병부대 내 태권도 교육의 현황과 과제(방용진 상사), △주월 한국군 태권도 교관단 기증 자료의 구성과 활용(국립태권도박물관 송병수 학예연구사) 등 4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군사, 체육, 문화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태권도의 세계화 전략과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으로 발표자들과 토론자 간의 교류를 통해 현장 경험과 이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성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은 "태권도는 한국군이 해외파병 과정에서 전한 무예이자 문화였으며 문화 교류와 관계 형성의 수단이기도 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

를 통해 군사사(軍史) 속 태권도의 가치를 정리하고 향후 국군의 문화·인도적 활동 속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태권도가 무예와 스포츠로서의 가치와 함께 문화 외교와 국방 협력의 자산으로 발전해온 흐름을 되짚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특히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민간군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태권도의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한 후속 연구 및 정책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주월 한국군 태권도 교관단 관련 자료의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Pianist **박상욱**
Sangwook-Park

Cellist **박건우**
Gunwoo-Park

Violinist **김지윤**
Gyoon-Kim

사단법인더문화와 함께하는
클래식 페스티벌 2025

2025. 5. 31토 5:00PM

문화공간 이룸

QR 코드: 에대 바로가기

김승희 축구협회 신임 전무이사 “소통으로 팬 눈높이 맞출 것”

‘풀뿌리 출신’ 무명 축구인 발탁

한국 축구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깜짝 발탁된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신임 전무이사(사진)가 ‘소통’으로 팬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신뢰를 찾겠다고 출사표를 밝혔다.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이사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명 출신이라 밖에서 보는 우리의 시선을 잘 안다”며 “제 강점은 정직하고 꾸준하게, 개인이 아닌 축구를 위한 삶을 살아왔다. 그런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려는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으로 축구 팬의 눈높이에 맞게,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신 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 코레일에 입단한 뒤 36년 동안 한 팀에서만 선수와 코치, 감독을 지냈다. 팬들 사이에선 ‘무명’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축구협회 전무이사는 그간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 축구인이 맡았던 자리다.

이런 가운데 김 전무이사의 발탁은 4연임 도전 과정에서 팬들의 비판을

받은 정몽규 회장이 축구계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 전무이사는 “평생 실업축구와 K3리그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해온 저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정 회장님이 앞으로 축구협회와 국내 축구계에 신선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보라는 상징적인 요구가 아닌가하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축구협회는 많은 팬과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며 “그래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이사는 크게 현장과의 소통 강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축구산업 확장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뉴시스